EU,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금지

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(British Columbia)주에서 발생한 병원성 조류독감(pathogenic avian influenza, AI)으로 인해,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(EC)는 4월 6일까지 EU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산 생가금류, 육가공품, 계란, 애완용 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건소비자보호 집행위원 David Byrne의 제안을 채택하였다. 조류독감은 가금류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, 특히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조류 질병이다.

3월 9일 캐나다 당국은 “브리티시 콜롬비아주 ‘Fraser 계곡’ 조류 무리에 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. 이번에 밝혀진 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최근 아시아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다른 것이며, 아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보다는 공중위생에 덜 위험한 것이다”라고 발표했다.

EU 집행부는 캐나다산 생 가금류(닭, 칠면조, 집오리, 거위), 주금류(타조 처럼 날개가 퇴화하여 나는 힘이 없고, 지상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새의 총칭), 사육되거나 야생의 사냥용 조류, 조류고기, 육가공품, 그러한 종들의 소비용 계란 및 부화용 계란과 다른 애완용 새들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.

지난 3월 11일 결정된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데, 2004년 4월 6일부로 적용된다. 그러는 동안 캐나다 정부는 질병 통제상황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를 EU에 제공했고, 다음날 세부 정보를 통해 좀더 적절한

대응책이 제안될 수 있었다

또한, 3월 22일 열릴 예정인 EU의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 (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)에서 EU 집행부의 결정과 캐나다의 질병상황이 재검토 될 것이다.

EU는 주로 캐나다에서 부화용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. 2003년에는 1,500만개, 1,050만 유로(€) 어치의 부화용 계란을 수입했다. 이는 EU가 수입한 전체 부화용 계란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이다. 또한 2003년에 EU는 부화한지 하루가 지난 17만 마리의 캐나다산 병아리를 수입했다. 그러나 같은 해 캐나다에서 수입한 가금류 고기 및 가공품은 오리고기 50톤에 지나지 않았다.

자료: RAPID
(주대진 jjudj76@hotmail.com 02-880-4746 지역아카데미)